



“뻘속까지 나쁜 놈 스스로도 공감 안됐죠”

영화 ‘마스터’ 이병헌

희대 악역 선보여 눈길

영화 ‘내부자들’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이병헌이 이번에는 희대의 사기꾼 역할로 돌아왔다. 조 단위의 사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과 사기꾼, 그리고 그의 브레인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그린 ‘마스터’에서 이병헌은 온갖 감언이설로 서민들의 쌈짓돈을 뜯어내고, 뇌물로 권력에 발붙는 진 회장 역을 맡았다. 2008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후 8년 만에 맡은 악역이다.

이병헌은 이 작품에서 ‘내부자들’ 속 안상구의 잔영을 견어내고, 새로운 악역을 선보여 ‘연기 마스터(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이병헌을 만나 ‘마스터’를 찍은 후일담을 들어봤다.

“‘내부자들’의 안상구와 ‘마스터’의 진 회장은 모든 면에서 다른 캐릭터죠. 진 회장은 특히 실제 롤모델을 많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캐릭터죠. 굳이 찾는다면 두 인물 모두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닮았다고 할까요.”

이병헌은 특히 “‘내부자들’이 굉장히 독하고, 센 영화라면 ‘마스터’는 템포가 경쾌하고 신나게 진행되는 영화”라고 언급했다. 이병헌은 진 회장이 ‘뻘속까지 나쁜 악역’이라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영화 속 진 회장을 보고 있노라면 ‘역시 이병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특히 극 초반 수만 명이 모인 체육관에서 단단게 근육조직 원네트워킹을 프로모션하는 장면에서는 이병헌의 장기가 잘 발휘된다. 진 회장은 대중 앞에서 낯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연설하는데, 스크린 밖 관



객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다. 이병헌은 진 회장 역을 위해 직접 여러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평생 고생해도 흠수저 인생인 인간들, 달콤한 꿈이라도 꾸게 해주고 싶다”는 진 회장의 대사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진 회장이라면 나쁜 짓을 해도 끊임없이 자기자신을 합리화를 할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 회장이 흰머리 스타일이나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필리핀식 영어를 구사하는 대목,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 나오는 에필로그도 그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이병헌은 강동원, 김우진 등 요즘 총무로의 대세인 후배 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도 솔직하게 털어냈다. “동원이는 웃도 잘입고 멋있는 친구예요. 트레이닝복만 입어도 멋있고, 패션감각이 있죠. 필리핀 촬영 때도 ‘어디서 저런 옷을 구했을까?’ 하는 옷들을

입고 나타나더라고요. 성격도 굉장히 쿨하고, 촬영하다가 다쳐도 술 못 먹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상남자죠. 공으로 하는 운동은 뭐든지 다 잘할 정도로 만능 스포츠맨인데, 이번 영화에서 그런 운동신경 덕분에 인지 동원이가 날카로운 액션을 보여준 것 같아요.” 김우빈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우빈이는 듣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청년이더라고요. 예의가 바르고 사람도 잘 챙기고, 의리도 있습니다.”

두 배우의 성격 차이를 볼 수 있는 에피소드도 들려줬다.

“‘매그니피센트’ 시사회 때 동원이랑 우빈이 모두 왔는데, 우빈이는 ‘포토존’에서 사진촬영을 한 뒤 저한테 인사하고 영화는 안 보고 갔죠.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성격이에요. 동원이는 사진도 안 찍고 슬며시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다 본 뒤 종파티까지 하고 갔어요. 둘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예요.”

이병헌은 올해 ‘내부자들’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 수상소감을 밝히면서 사회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받았죠. 올해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은 일반사람 정도 수준이에요. TV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얘기했을 뿐이지, 어떤 소신이 있어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헌은 현재 공효진과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 ‘싱글라이더’ 개봉을 앞두고 있고, 김윤석·박해일·고수와 함께 출연하는 ‘남한산성’을 촬영 중이다. 최근 몇 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그는.

“한국영화 시장이 커져서인지 놓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해보지만, 제 뜻대로 되지 잘 모르겠네요.”

남궁민·남상미, KBS 2TV ‘김과장’ 호흡

배우 남궁민과 남상미가 KBS 2TV 수목극 ‘김과장’에서 호흡을 맞춘다고 흥보사 3HW가 13일 밝혔다.

내년 1월25일 시작하는 ‘김과장’은 지방 조폭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민주머니’를 차던 김성룡이 우연히 국내 굴지의 TQ그룹 경리과로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코미디다.

남궁민은 TQ그룹 경리부 과장 김성룡, 남상미는 TQ그룹 경리부 대리 윤하경을 각각 연기한다. 이들과 함께 tvN ‘기억’으로 호흡받은 2PM의 이준호가 중앙지검 회계 범죄 수사부 검사에서 TQ그룹 재무이사가 된 서울 역에 캐스팅됐다.

연합뉴스



〈남궁민·남상미〉

빅뱅 정규 3집 컴백

국내의 음원 차트 싸움이 ... 예능 출연도

정규 3집으로 컴백한 그룹 빅뱅이 국내의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13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0시 공개된 빅뱅의 ‘메이드 더 풀 앨범’(MADE THE FULL ALBUM)의 더블 타이틀곡 ‘에라 모르겠다’와 ‘라스트 댄스’(LAST DANCE) 그리고 ‘걸프렌드’(GIRL FRIEND)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멜론, 올레, 벅스, 엠넷, 지니,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몽키3 등 8개 국내 음원 사이트 차트의 1~3위를 싹쓸이했다.

특히

음원 공개 직후 이



번 3곡의 신곡 외에도 지난해 발표한 ‘메이드 시리즈’ 앨범의 8곡이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차트 100위 안에 재진입해 ‘메이드 더 풀 앨범’ 수록곡 전곡이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진기록을 만들어냈다.

또 ‘메이드 더 풀 앨범’은 코스타리카, 핀란드,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 16개국 아이튠스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빅뱅은 오는 18일 SBS 음악프로그램인 ‘인기가요’를 통해 신곡의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또 MBC 예능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와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SBS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55 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
11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역도요정 김복주〉(재)	00 SBS 12뉴스 40 KBC 12뉴스
1	00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종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00 비타민 (재)	20 리얼스토리 논 50 텔레몬스터 55 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2	00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
3		00 지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4		00 여유만만(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야사 쿵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KBS송년음악회 아듀 2016 희망 2017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불교의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트릭 앤 테루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송년특집 웃음을 찾는 사람들 히트코너 왕중왕전
12	3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5:05 두기암혈대	20:50 세계테마기행 〈도시분석 홍콩, 마카오 - 역사를 품은 도시, 마카오〉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아시아인스포르츠 - 중국 각국의 패우절〉	10:30 한국기행	15:20 꼬마기사 마이크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고막무침 비빔밥과 매생이전〉	15:35 요술상자(2)	21:30 한국기행 〈아생-사나이처럼 한뼘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두다다둥	21:50 EBS 다큐 프리덤 〈슬픈 늑대〉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00 EBS 정오 뉴스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천국(재)	22:45 국한직업 〈잠치 하역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5 똥동댕 유치원 1~3(재)	23:35 장수의 비밀
07:45 꼬마버스 타요	12:40 지식채널 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출구 조사의 함정은?〉
08:00 똥동댕 유치원 1~3	12:45 EBS 초대석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24:10 특집 국민공감콘서트 대한민국 〈大韓國民 나는 누구인가〉
08:45 최고다! 호기심 천국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13:50 그림을 그려요(2)	19: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09:15 시계마을 타키톡	13:55 코코롱3(재)	19:30 EBS 뉴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25 책과 땅	19:50 명의(재)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4일(음 11월 16일 庚午)

子

48년생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60년생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던 바가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할 사건이 발생한다. 72년생 가까운 이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 84년생 과욕한 대로 필히 근심이 생기리라. 행운의 숫자 : 51, 76

丑

49년생 별것 아니니 대범하게 넘겨도 된다. 61년생 한 순간에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는 동세이다. 73년생 발전의 단계에 진입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 85년생 자본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실행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12, 80

寅

50년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잡하게 서로 엉켜 있으니 오랫동안 지연되는 양태이다. 62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74년생 가장 적절한 형태의 조건이 보인다. 86년생 먼저 실행하는 이가 임자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9, 92

卯

5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운로이다. 63년생 아차피 어긋나게 되어 있느니라. 75년생 오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잘 살펴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87년생 노력을 경주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74

辰

40년생 허점이 보인다. 52년생 매듭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64년생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여든 이들이라 가득 차 있다. 76년생 과감하게 시도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88년생 현태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07, 96

巳

41년생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 53년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니 부지런히 활동하라. 65년생 얼마나 치밀 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77년생 상생해야만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89년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행운의 숫자 : 14, 55

午

42년생 골들어 왔던 바가 궁극적인 결실을 보게 되리라. 54년생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 풍요로울 것이다. 66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꽃을 틀 수도 있다. 78년생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행운의 숫자 : 61, 94

未

43년생 빛 밟고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55년생 조절을 잘 해야 무리함이 없을 것이다. 67년생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확기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79년생 궁극중이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49

申

44년생 현황에 집착하지 말라. 56년생 전문성이 없다면 아예 도음이 되지 않는 법이니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라. 68년생 무리한다면 다음날 지장이 있다. 80년생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행운의 숫자 : 40, 32

酉

45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자꾸 연기되리라. 57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 69년생 기회란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니 포착하는데 만념 하라. 81년생 같이 있어야 공조가 이루어지느니라. 행운의 숫자 : 21, 98

戌

46년생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사소한 것은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되느니라. 58년생 빨리 봉합하고 불 연다. 70년생 경우에 맞지 않으면 봉패할 소지가 많다. 82년생 꼭 다쳐야와 할 곳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37

亥

47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할 판국이니라. 59년생 지금 당장 손발 필요까지는 없으니 우선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된다. 71년생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83년생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58, 2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